

여자대학생의 시어머니에 대한 고정관념

Stereotypes of the Mother-in-law Held by Female Students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영숙*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박경란

College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

Professor : Yi, Yeong-Sug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The Institute of Welfare of Human & Environment, Inje Univ.

Professor : Park, Kyung-Rh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stereotypes toward the mother-in-law held by female students. Stereotypes toward the mother-in-law were examined at two levels: to assess female students' beliefs about the traits of mother-in-law and to categorize the traits into stereotyp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Students reported 91 traits associated with the mother-in-law.
- 2)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of the trait groupings revealed two high-level clusters: a cluster of 42 positive traits and a cluster of 49 negative traits. Within the positive and negative clusters, 14 middle-level categories, 6 positive categories (tough, leisurely, traditional image of prudent elders, image of the eldest in the family, intimate, tolerant), and 8 negative categories (dominant, self-assertive, cold, discriminating, fearful, mean, sadistic, authoritative, nervous) were identified. This results suggested that female students believed negative stereotypes are more typical than positive ones.

▲주요어(Key Words) : 고정관념(stereotypes), 긍정적 특성(positive traits), 부정적 특성(negative traits)

I. 서론

예로부터 한국사회의 고부관계는 갈등관계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다. 예전에는 며느리 세대의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예속의 규범만을 강조하는 권위-복종의 관계였지만(최재석, 1982). 오늘날에는 전통적 가족규범의 붕괴, 시모의 경험과 지혜의 중요성 약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며느리 입장 강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과거와는 다른 역할

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부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갈등적인 가족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의 가족상담결과 우리나라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고부갈등이 부부간의 부정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서울시 가정상담소, 2000; 이혜자, 2003 재인용)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들은 가장 불편한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제일 많이 지목하고 있는 것(김선영, 2002)은 이를 잘 나타내준다.

고부간의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주부의 정신질환, 노인들의 가출이나 방황 등(정현숙·유계숙, 2001) 당사자들

* 주저자 : 이영숙 (E-mail : ysyi@kunsan.ac.kr)

에게 심한 고통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가족은 한 집단 또는 '체계'로써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Vosler, 1996) 다른 가족구성원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고부문제는 부부관계(박성혜, 1995), 조손관계(Whitbeck 등, 1994), 자녀관계, 기타 가족관계 문제로 발전되기 때문에(이광규, 1981) 실로 중요하다. 더욱이 오늘날 고부문제를 가급적 완화 또는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들과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가구의 노인들의 경우에도 그들 며느리와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결정되고 있어(박경란 등, 1995) 고부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학자들은 고부갈등의 원인(이기숙, 1985; 이혜자, 2003) 및 대처방안(이정연, 1990), 부양스트레스 및 긴장(송현애 · 이정덕, 1995; 이신숙 · 서병숙, 1994), 그리고 고부관계향상교육프로그램(이정연, 2002; 이정연 등, 1996; 홍숙자 등, 1996) 등에 초점을 두고 고부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실생활의 고부관계에 바탕을 둔 연구들로 개인적, 가족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질 경험이 없더라도 고부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 문화에서는 지배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느 시기에나 한 사회에 속해 있는 집단은 연령, 성, 인종을 포함하여 모두 고정관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Renzetti, & Curran, 1999),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시어머니 집단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도 그 예외는 아니다.

고정관념은 물론 우리의 지각활동을 간편하게 처리해 주고, 인지체계가 사고방식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해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어떤 문화나 집단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미리 정해진 지각의 틀에 맞추어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홍기선, 198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모나 TV, 기타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시어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사전 인지하고 이를 실제 고부관계에서 잘못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의 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부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정연(2002)의 지적대로 고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행동적 차원에 앞서 근본적인 인지체계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의 인지체계를 올바르게 수정한다면 고부갈등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가족의 다른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고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앞 둔 미혼 여성들이 갖고 있는 시어머니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악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의 특성은 무엇이며, 시어머니에 대한 고정관념의 범주는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고정관념

사회에는 완전한 동의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한 집단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리고 집단의 구성원은 임의적인 사회 규범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개인 간 상호관계에서 상대방의 특성, 행동, 유형을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데 사용하는데(Renzetti, & Curran, 1999), 이것은 선천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어떤 것도 아니며(홍대식, 1984), 또한 직접 경험에 의해서만 학습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Hamilton과 Troler(1986)는 고정관념은 어떤 한 집단에 대한 개인의 지식, 신념, 그리고 기대를 내포하고 있는 인지적 구조로 정의하였으며, Klopff와 Park(1982)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보다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또한 Ashmore와 Del Boca(1981)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고정관념은 한 특정문화에서 어떤 한 집단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일반화된 신념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고정관념은 "나쁜" 것으로 간주되며, 문화에 걸쳐 지속되고,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개인에 의해 수용된다고 하였다(Hummert 등, 1995 재인용).

이와 같이 고정관념은 개인상호간 수준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구조적 수준에서도 일어나는데, Lippmann(1950)은 고정관념은 i) 분화되었다기보다는 단순하고, ii) 정확하기보다는 오류가 많으며, iii) 간접경험을 통하여 사물에 접하게 되며, iv) 새로운 경험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그 결과 보통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지하는(Palmore, 1999) 순환을 거듭하면서 유지되어 나간다.

또한 고정관념은 종종 편견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편견은 자기가 속한 문화를 기준으로 삼고서 다른 문화나

그 구성원을 판단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정의되는데, 정확하게 비교해서 다른 문화나 집단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측면에서 본 것이 고정관념이라면, 감정적 또는 평가적 측면에서 본 것이 편견이다(Palmore, 1999). 이 두 가지 요소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모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 고부갈등의 특성

고부관계는 혈연의 관계가 없는 타인끼리 한 남성을 매개로 하여 법적, 인위적 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가장 문제가 많은 가족 내 인간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일생동안 서로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가족을 발달을 이루어 나가므로 고부관계는 실로 중요하고 복잡하다(유영주 등, 1996).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가족관계가 부부관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과거에 며느리의 일방적인 인내로 노출되지 않았던 고부간의 여러 문제가 표면화됨으로써 고부갈등은 실제적으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고부관계가 가족 내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관계로 지적해 왔으며,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Berg-Cross(1999)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부간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첫째, 여성들은 친족유지 주 역할담당자이며, 가정의 일상 활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가족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거의 항상 가족대소사를 계획하고, 음식을 만들고, 친척들을 초대하고, 선물을 사는 등 가정을 관리해 나가는 창조자들이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자신의 생각과 스타일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스타일과 욕구와 부딪칠 때 이를 통합하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고부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둘째, 모-자녀간 정서적 애착은 부-자녀의 애착보다 전통적으로 강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부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편과 시아버지가 부인/며느리의 관심을 위해 경쟁하는 것보다 남편/아들의 관심에 더 경쟁적이다. 셋째, 전통적으로 아들에 비해 딸들은 결혼할 때 그들의 모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의존성의 결과로 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고나 지지를 원할 때 그들의 시어머니를 배제하는 태도를 취한다. 반면 Sussman(1965)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정체감을 아들, 딸을 돌보는 데서 찾았기 때문에 며느리에 의해 자신의 정체감이 이행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김종숙·최신덕, 1983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부관계는 병리적 현상에서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에서 그 특색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고부는 환경과 생활양식이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성장한 두 여성이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상충되는 지위에 놓임으로써 구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이광규(1981)에 따르면 전통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여자라는 조건과 혼인한 여자라는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어 가까운 사이일 수 있으나, 성취지위의 경쟁자, 자기가 구축한 아성의 침략자, 그리고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간 공격과 같은 외적 조건이 오히려 고부간의 불화의 조건이 되며, 원천적인 대립관계로 이끈다. 또한 같은 여자로서 생활 및 작업 영역이 같은데다 가사의 처리에서 서로 접촉하는 시간도 가장 많기 때문에 상호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고부갈등의 원인에 대해 이기숙(1985)의 연구에서는 시모의 상대적 비교, 시모의 이기적 태도, 소외감, 시모와의 대화 결여, 친척 및 가습의 차이, 손자녀 문제, 친정문제 등의 7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유영주 등(1996)은 이를 권력구조면에서의 갈등, 역할구조면에서의 갈등, 애정구조면에서의 갈등, 세대차이 측면에서의 갈등, 이해관계 측면에서의 갈등 등 다섯 측면으로 고부갈등 요인을 정리하였다. 반면, 시모의 측면에서 고부갈등을 고찰한 김태현·한희선(1990)은 시모의 소외감에서 오는 갈등, 손자녀로 인한 갈등, 며느리의 가정관리태도 미성숙에서 오는 갈등, 며느리의 아들에 대한 태도로 인한 갈등의 네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실제적으로 여성들은 친족 중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사람으로 32%가 친정어머니를 꼽은 반면,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으로는 시어머니(24%)를 제일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영, 2002). 시어머니가 불편한 이유로서 20대 여성들은 말을 알뜰게 한다, 딸·아들·며느리 차별, 간섭이 심하다, 생활습관이 안 맞아서, 너무 이기적이다 등을 들었으며, 30대 여성들은 성격차이, 아들에 대한 편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엄격한 성격, 남편과 나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 긴장되니까, 도리를 안 하시고 암체다, 항상 요구만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고집이 세다, 편하지가 않다, 웅졸하다, 성격이 쌀쌀맞다, 세대차이, 늘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꼽았다.

이와 같이 오늘날 가족관계의 많은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부관계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로 특징되는데, 송현애와 이정덕(1995)은 연령이 많고, 전업주부이면서, 시부모와 동거하고, 외며느리이거나 만며느리일 경우 고부문제로 겪는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였다. 결국 고부갈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고부관계는 원만하지 못하고, 또 원만

하게 비춰지지 않으므로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왜곡된 방향으로 확대되어져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게 하는 악순환의 과정을 밟게 된다.

관련문헌들은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개인적·가족적·사회적 접근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유영주 등, 1996), 또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며느리 측의 긍정적인 인지변화만으로도 고부관계 개선이 가능하고 그 효과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이정연(2002)은 우선적으로 고부관계에 대한 인지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시모의 특성을 산출하는 제1조사의 대상은 전북에 소재한 K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여자대학생 55명이었다. 이들은 가족 관련 강의 수강자 중 자원한 학생으로 이들의 나이는 21세에서 24세에 걸쳐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23세이었다.

시모의 특성을 분류하는 제2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22명이었다. 이들은 제1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학생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22세이었다.

2. 조사과정

1) 조사1: 시모의 특성을 산출하는 과정

Schmidt & Boland(1986)가 사용한 방법에 따라 제1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시모의 전형적인 특성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를 잠시 생각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다음 한 단어나 짧은 문구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시모의 전형적인 특성을 모두 적도록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시모에게 속한 것으로 들어왔던, 보아왔던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묘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또는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서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다.

조사결과, 학생들은 한 단어(명사 또는 형용사)나, 유사한 의미의 두 단어(예: 며느리를 미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짧은 구절, 또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모의 특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들이 묘사한 단어수는 최하 5단어부터 최

고 23개의 단어였다. 서술된 시모특성은 대체로 외모 또는 능력 등을 나타내는 특별한 신체적 특성, 인성 특성, 인지적 특성, 역할 특성, 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특성, 그리고 단순한 설명이나 평가적인 반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내용과 고정관념 특성에 반영될 수 없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우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연구자들이 각자 시모의 특성목록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교 검토해 나가면서 다음의 몇 가지를 논의·결정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서술한 낱말 가운데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은 가장 함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단어로 대체하여(예: 매운 고추, 시집살이시키기는→ 시집살이시키기는) 분명한 의미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명사(예: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길 수 없는, 며느리 사랑→며느리를 사랑하는)나 짧은 문구(예: 칭찬에 인색하다→칭찬에 인색한)는 간단한 형용사로 바꾸었다. 이러한 최종 표현의 결정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시모의 고정관념과 무관한 표현으로 판단되는 서술들은 제외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시모에 대한 단순한 설명(예: 남편의 어머니, 시아버지의 마누라)이나 개인적 평가를 나타낸 것(예: 마음에 안듦, 밥맛)은 본 연구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덧붙여 신체적 특성 가운데 단순히 노화된 외면적인 모습만을 지적인 표현들(예: 검버섯, 굵은 허리, 두터운 스웨터를 입은, 내복입은 등)도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시모의 인성적, 인지적 특성,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 활동이나 역할 등을 서술하는 91개 특성을 시모의 고정관념 표현으로 채택하였다.

2) 조사2: 시모의 특성을 분류하는 과정

시모특성 분류작업을 위해 우선 조사1에서 산출된 91개의 시모특성을 하나씩 적은 91장의 카드와 '기타'라고 적은 1장의 카드를 포함하여 총 92장의 카드를 만들었다. 이를 조사1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22명의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동일한 시모가 가진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특성을 적은 단어들을 하나의 집단 속에 집어넣어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예: '사치스러운' 특성을 지닌 시모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자유분방한', '온천욕을 즐기는'이라면 이 세 단어를 한 집단속에 집어넣도록 함). 만일 어떤 한 특성이 하나의 집단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집단 모두에 넣도록 하였으며, 반면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기타'라고 적혀진 카드에 넣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만일 두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해당되는 두 집단에 겹쳐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류되는 집단의 수는 참여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분류를 끝마칠 때까지 여러 번 바꾸어 재 시도해도 무방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을 완성하는데 시간제약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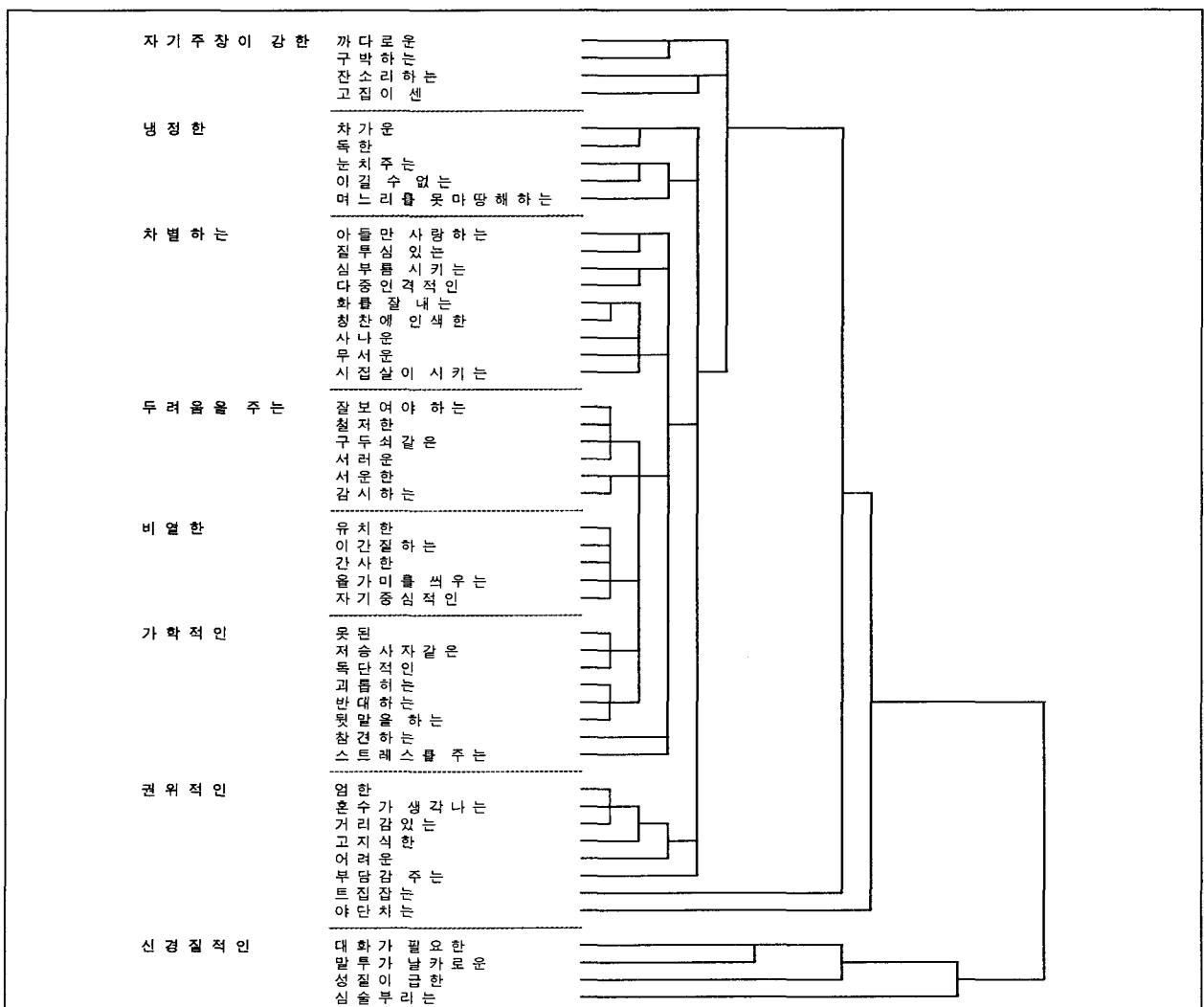
3. 분석방법

고정관념을 분류하기 위해 표시된 자료를 92*92 행렬표에 배치하였다. 이 행렬표는 같은 두 특성이 동일한 집단에 놓여지는 빈도수로 작성되었다. '기타'로 분류한 특성은 다른 모든 특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이 결과 행렬표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대상끼리 순차적으로 묶어 가는 (euclidean distance 방식)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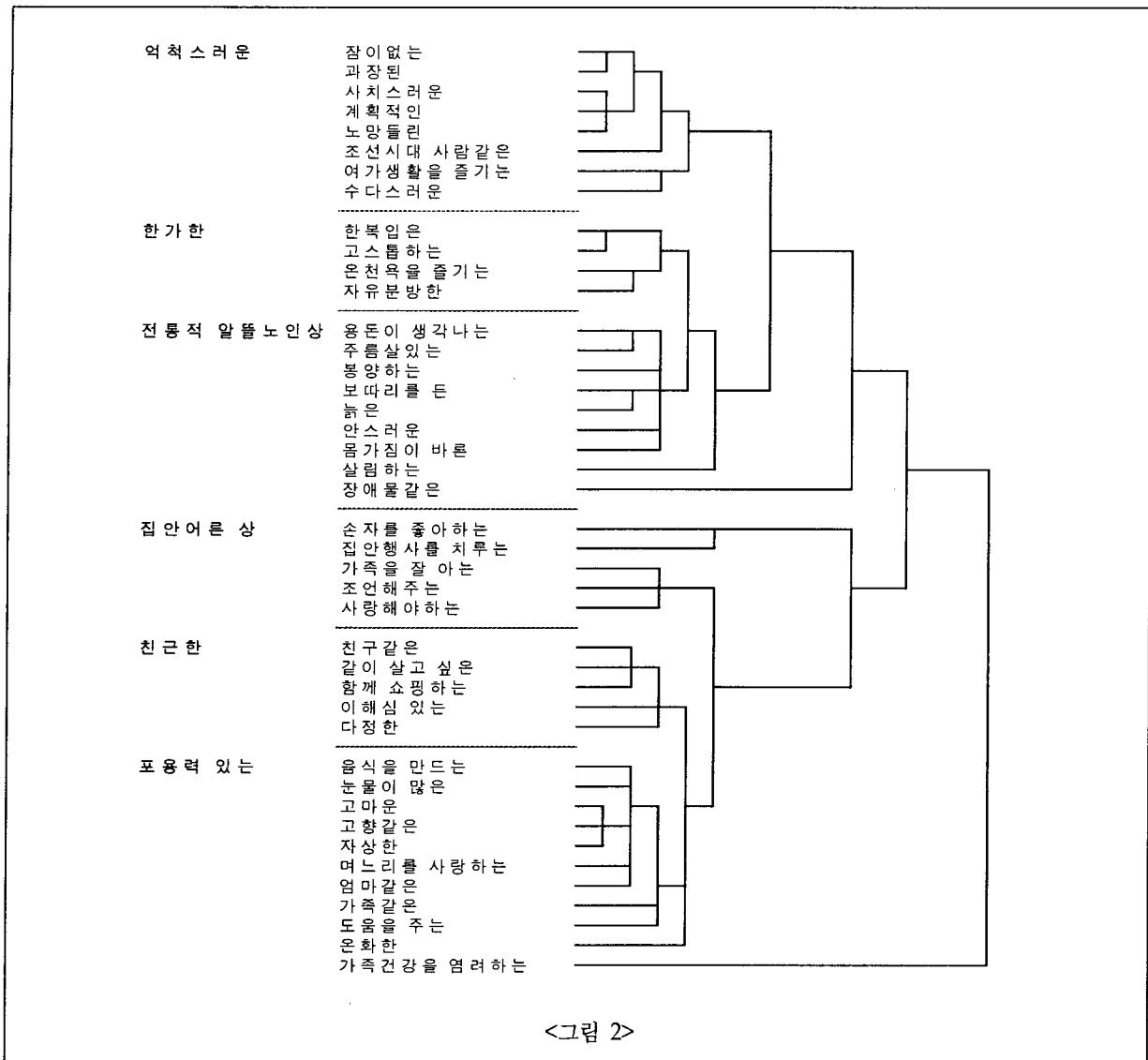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및 해석

시모의 특성에 대한 조사1에서 여대생들은 시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91개 특성을 지적하였다. 이 91개 특성을 군집 분석한 결과 상위수준에서 2 집단, 중위수준에서 14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상위 두 집단은 42개 긍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하는 긍정적 군집과 49개 부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하는 부정적 군집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위 14 집단은 6개의 긍정적 군집과 8개의 부정적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여대생들이 시모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전체 91개 특성 가운데 49개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이는 대학생들이 시모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정관념(46.2%)보다 부정적 고정관념(53.8%)을 약간 더 많이



<그림 1>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전통사회에서부터 내려온 시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49개 부정적 특성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의 중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8개의 부정적 군집은 '자기주장이 강한', '냉담한', '차별하는', '두려움을 주는', '비열한', '가학적인', '권위적인', '신경질적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제 1군집은 까다로운, 구박하는, 잔소리하는, 고집이 센 등 4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위주로 주장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이므로 '자기주장이 강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2군집은 차가운, 독한, 눈치 주는, 이길 수 없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지 않아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는 사람의 특성이므로 '냉담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3군집에는 아들만 사랑하는, 절투심

있는, 심부름시키는, 다중인격적인, 화를 잘 내는, 칭찬에 인색한, 사나운, 무서운, 시집살이 시키는 등 9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람을 등급을 매겨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특히 아들과 며느리를 달리 대우하는 특성이므로 '차별하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4군집은 잘 보여야 하는, 철저한, 구두쇠 같은, 서러운, 서운한, 감시하는 등 6개 특성이 해당되며 이는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상황을 만드는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두려움을 주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5군집은 유치한, 이간질하는, 간사한, 울가미를 씌우는, 자기중심적인 등 5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여 남을 간접적으로 못살게 구는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비열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6군집은 못된, 저승사자 같은, 독단적인, 괴롭히는, 반대하는, 뒷말을 하는, 참견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등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성들 8개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가학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7군집은 엄한, 혼수가 생각나는, 거리감 있는, 고지식한, 어려운, 부담감주는, 트집 잡는, 야단치는 등 상대방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성들 8개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권위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제 8군집은 대화가 필요한, 말투가 날카로운, 성질이 급한, 심술부리는 등 4개 특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신경이 과민하여 성급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가진 특성들이므로 '신경질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반면 대학생들이 시모에 대해 인지하는 긍정적 고정관념은 전체 91개 특성 가운데 42개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42개의 긍정적 특성은 6개의 중위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그림 2>, 이러한 6개의 군집은 다시 크게 두 범주로 나뉘어졌다. 즉 하나는 시모의 개인적 특성 대해서 갖는 긍정적 고정관념으로 '억척스러운', '한가한', '전통적 알뜰 노인상'의 3 범주가 이에 해당되며, 다른 하나는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갖는 긍정적 고정관념으로 '집안어른상', '친근한', '포용력 있는'의 3 범주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혼 여대생이 시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시모 개인적인 특성과 시모와 며느리의 관계 특성으로 나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제 1군집에 포함되는 특성은 잠이 없는, 과장된, 사치스러운, 계획적인, 노망 들린, 조선시대 사람 같은, 여가생활을 즐기는, 수다스러운 등 8개 특성으로 이는 모두 오랜 세월을 어렵게 살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얻은 특성에 해당되므로 '억척스러운'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2군집은 한복 입은, 고스톱 하는, 온천욕을 즐기는, 자유분방한 등 4개 특성으로 이는 바쁜 인생을 살아온 뒤 여유로움을 즐기는 사람의 특성이므로 '한가한'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3군집은 용돈이 생각나는, 주름살 있는, 봉양하는, 보따리를 든, 늙은, 안쓰러운, 몸가짐이 바른, 살림하는 등 8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전통 사회에서 어려운 살림을 도맡은 여주인이 가진 특성이므로 '전통적 알뜰노인상'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4군집은 손자를 좋아하는, 집안행사를 치루는, 가족을 잘 아는, 조언해주는, 사랑해야하는 등 5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한 집안을 이끌어어나가는 여주인이 하는 역할에 대해 갖는 특성이므로 '집안어른상'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5군집은 친구 같은, 같이 살고 싶은, 함께 쇼핑하는, 이해심 있는, 다정한 등 5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옆에 가까이하고 싶은 사람이 가진 특성이므로 '친근한'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6군집은 음식을 만드는, 눈물이 많은, 고마운, 고향 같은, 자상한, 며느리를 사랑하는, 엄마 같은, 가족 같은, 도움을 주는, 온화한, 가족건강을 염려하

는 등 11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마음씨가 너그러워 잘 못까지도 다 감싸주는 사람이 가진 특성이므로 '포용력 있는'이라고 명명되었다.

전반적으로 이상의 시모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고정관념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시모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시모에게 부여하는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는 시모의 힘과 주도권이 절대적이어서 고부간의 갈등은 상호적이라기보다는 며느리에 대한 일방적인 억압으로 나타나(김선희, 2001) 시모를 아들과 며느리를 차별대우하며 시집살이 시키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시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모는 며느리에게 군림하여 두려움을 주는 냉담한 사람이나 며느리의 단점을 부각시키거나 트집 잡는 비열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대생의 시모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모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점은 시모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고정관념보다 적다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에게 위세와 존경을 베풀었던 이유는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최신덕, 1985)이지만 나이드은 사람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현상들이 속출하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시모에 대한 평가도 예외일 수는 없다. 즉 시모들에게 분명히 정해진 기능 및 역할이 결여된 현대 사회에서 시모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며느리를 지배하려 하는 '권위적인' 사람이나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더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한편 여대생이 시모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 관념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모에 대한 관념에 따른 것과 현대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가족에서 시모는 며느리와 의 관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해도 가정의 안살림을 이끌어 가는 웃어른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노인으로 특징 지워왔는데 이러한 특성이 미혼여성에게도 영향을 주어 '집안어른상'이나 '전통적 알뜰노인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큰 살림을 하는 어른에 대해 '억척스러운' 관념이나 직접 살림을 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있는 '한가한' 관념도 이와 관련된 관념이라 볼 수 있다. 현대의 변화는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고부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주도권이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로 이동하는 현상이나 여성의 사회

진출로 머느리의 경제적능력 향상, 직업여성의 가정 밖 사회활동으로 엄격한 성역할이 완화되는 현상 등(김선희, 2001)은 시모를 두려워만한 존재에서 '친근한' 존재나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시모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가져오는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여대생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시모의 특성 및 특성의 범주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녀 대학생 55명에게 시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방형질문의 조사와 조사된 단어를 22명의 남녀 대학생에게 동일 시모의 특성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이 결과를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이 전형적인 시모의 특성으로 서술한 단어는 총 91개였다. 둘째, 시모 특성에 대한 군집화 분석결과 긍정적 특성 군집(42개)과 부정적 특성 군집(49개)으로 나뉘어졌고, 두 군집 내에 14개의 중간 수준의 군집 즉 6개의 긍정적 특성 군집과 8개의 부정적 특성 군집이 산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고정관념은 '억척스러운' '한가한' '전통적 알뜰노인상' '집안어른상' '친근한' '포용력있는'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고정관념은 '자기주장이 강한' '냉담한' '차별하는' '두려움을 주는' '비열한' '가학적인' '권위적인' '신경질적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시모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정관념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약간 더 갖고 있는 경향은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여기는 현재에도 시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대생은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그들이 시모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은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라기보다는 시모의 속성에 대한 현시대 사람들의 신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은 시어머니와 머느리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여대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시모에 대한 고정관념의 범주를 살펴볼 때 전통 사회에서 시모에게 가졌던 신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친근한'이나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는 여대생의 관념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규모가 적어지고 경제적 여건이 전통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진 지금도 여대생들이 시모를 여전히 '집안어른상' '전통적 알뜰노인상' '억척스러

운' 사람으로 인지하는 것이나, 시모가 머느리 눈치를 본다는 신시집살이가 유행어가 되고있는 지금도 여전히 시모를 '두려움을 주는' '비열한' '가학적인' '권위적인' '신경질적인' '냉담한' 사람이라는 관념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시모는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시모의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 나이는 수명이 짧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활동이 왕성한 나이인데도 '한가한' 사람이란 관념을 여대생들이 가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실제 머느리를 대상으로 한 고부관계향상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한국가족이 당면한 고부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연, 2002; 이정연 등, 1996; 홍숙자, 1996). 따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 머느리들에게도 시모에 대한 편견 및 차별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중의 하나가 대중매체이다. 따라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부관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고 현대사회에 부합되는 고부관계 및 시어머니/머느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많은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미혼여성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어머니들이 머느리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09월 09일
- 심사일 : 2005년 09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1월 17일

[참 고 문 헌]

- 김선영(2002). 친족관계. 이동원·김현주·최선희·함인희·김선영, **한국가족의 현주소**(pp. 245-277). 서울: 학지사.
- 김선희(2001). 한국문화와 고부갈등의 문제. **철학과 현실**, 50, 161-172.
- 김종숙·최신태(1983). **노인과 사회**. 서울: 고시연구사.
- 박경란·제미경·오찬옥(1995).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가족·소비·주거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01-

- 114.
- 박성혜(1995). **며느리가 지각한 고부갈등과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현애 · 이정덕(1995).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부양자원과 부양스트레스 인지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15-123.
- 유영주, 김경신,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이광규(1981). **한국가족의 심리문제: 고부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일지사.
-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 · 서병숙(1994b).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29-139.
- 이정연(1990).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35-145.
- 이정연(2002). **고부관계개선을 위한 긍정적 사고훈련 프로그램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17-136.
- 이정연 · 정혜정 · 장진경(1996). **젊은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3-26.
- 이혜자(2003).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19, 31-59.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최신덕(1985). **노년사회학**. 서울: 경문사.
- 최재석(1982). **개정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홍기선(1989).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나남.
- 홍대식(1984).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 홍숙자 · 유은희 · 전길양(1996). **중년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향상 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306.
- Berg-Cross, L.(1999). **Couples Therapy**. Thousand Oaks: Sage.
- Hamilton, D. L. & Trolie, T. K.(1986).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An overview of the cognitive approach**. In JF. Dovidio &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pp. 127-164). Orlando, FL: Academic Press.
- Hummert, M. L., Shaner, J. L. & Garstka, T. A.(1995). **Cognitive processes affecting communication with older adults: The case for stereotypes, Attitudes, and belief about communication**. In Nussbaum J. F. & Coupland, J.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Aging Research*.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lopf, D. W. & Park, M. S.(1982). *Cross-cultural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s*. 서울: 한신출판사.
- McLuhan, M.(1967). *The Medium is the Message*. New York: Bantam.
- Palmore, E. B.(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2nd Ed.).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Renzetti, C. M. & Curran, D. J.(1999). *Women, men, and society*(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Vosler, N. R.(1996). *New approaches to family practice: Confronting Economic Stress*. Thousand Oaks : Sage.
- Whitbeck, L., Hoyt, D. R. & Huck, S. M.(1994). **Early family relationship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provided to parents by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9, 85-94.